

후지보 니트부 - 여성용 니트 소재를 중국 합판 공장에서 생산

후지보는 그 동안 일본 내에서 생산해 오던 여성용 외의 편포를 중국의 합판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.

후지보는 중국의 “산동상사집단(山東桑莎集團)”과의 염색 가공 합판으로, 10%를 출자하여 2003년 6월에 “제성후지보(諸城富士紡)”를 설립하였다. “제성후지보”는 편포의 머서화 가공 시설을 도입하고 후지보 와카야마(和歌山) 공장의 기술 지도를 받아 2004년 3월 하순부터 가공하기 시작하였다. 이 공장은 월간 300t의 편포 가공 능력이 있으며, 이 중에서 100t은 후지보가 활용하게 되었다. 후지보의 니트부는 이 공장의 경영에 참여하여, 가공포 100t 중 80%를 여성용 외의 소재로 사용할 예정이다.

후지보의 니트부에 있어 여성용 외의 시장은 니트부 판매고의 40%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, 2003년도에는 이 시장의 판매 규모가 갑자기 줄어 니트부로서는 10% 수입이 줄었고, 영업 이익도 5%가 감소하였다. 2001년도부터 수입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, 2003년에 단숨에 뚝 떨어진 것이다.

이 원인은 일본 내 양판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급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며, 후지보도 이에 충격을 받아 중국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. ♣